

특집

2010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 총평과 해설

2010년 한 해 도서관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도서관계에 이슈가 되었던 열 가지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우선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투입산출지표값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연구방법론과 측정방식을 사용해 조사된 해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미국 세인트루이스공공도서관(3.7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며, 영국국립도서관(4.40)보다는 낮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 공공도서관(1.36) 보다는 높은 것으로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 나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준과 국민들의 인식과 활용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정책부서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국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도서관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확충 및

학교도서관 육성, 대학도서관 학술DB 국가 일괄 구독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시행계획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두드러진 한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어 인천광역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기구로 인천도서관협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도서관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이 보류되고 시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2009년에 이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조례안 제정 추진과 의회 재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결국 시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이 활동에는 올해 5월 창립한 한국사서총연합회가 함께하기도 했다.

대학도서관 분야에서도 12월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2010년도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이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학규모와 특성화분야 별 총 10개의 우수 대학도서관이 선정되기도 했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활동도 2009년에 이어 계속 되었는데 올해에는 우리협회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등 1인 배치’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서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촉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전문도서관은 사서간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해 전문도서관 분야 사서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업무가 기존의 미디어정책국 출판쇄산업과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로 이관되기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자들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도서관과 함께 개발도상국 도서관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고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국회도서관은 세계법률정보망 서울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는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며 “10월의 하늘”이라는 도서관에서 과학자들의 강연기부 활동처럼 재능기부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밖에 학교도서관 전문 월간지 《학교도서관저널》의 창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정보센터 설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관심 고조로 한국 데이지 컨소시엄 발족, 학과 및 학회, 연

구회 등의 창립 기념행사 활발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의미있는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2010년 도서관계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우리협회는 올 한 해 도서관계에 있었던 다양한 활동과 사건들을 22건의 후보 뉴스로 정리하고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http://www.kla.kr>)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를 근거로 《도서관문화》 편집실 회의를 통해 최종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 설문조사 항목

- 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투입산출지표) 3.66에 달해
- ②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 발표
- ③ 독서문화진흥업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
- ④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계속적 논란
- ⑤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계획 발표에 따른 민간위탁 논란 과열
- ⑥ 한국사서총연합회 창립대회 개최 및 활동 시작
- ⑦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를 위한 촉구 활동 계속
- ⑧ 도서관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하는 지자체 늘어나
- ⑨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도서관 관련 공약 발표
- ⑩ 2010년도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 결과 발표
- ⑪ 전문도서관 대상 멘토링 서비스 실시
- ⑫ 학교도서관 전문 월간지 《학교도서관저널》 창간
- ⑬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크게 증가
- ⑭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전국적으로 풍성
- ⑮ '10월의 하늘' - 도서관에서 과학자들의 강연기부 활동
- ⑯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추진
- ⑰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정보센터 추진단 설치
- ⑱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관심 고조
- ⑲ G20 정상회의 관련 문화행사 마련
- ⑳ 개발도상국 도서관 지원 활동 활발
- ㉑ 제17차 세계법률정보망 서울회의 개최
- ㉒ 학과 및 학회, 연구회 창립 기념 행사 활발

◎ 10대 뉴스

-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를 위한 촉구 활동 계속
- | 도서관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하는 지자체 늘어나
-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 발표
-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크게 증가
- |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계속적 논란
- | 한국사서총연합회 창립대회 개최 및 활동 시작
-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투입산출지표) 3.66에 달해
- |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계획 발표에 따른 민간위탁 논란 과열
- |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추진
- | 2010년도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 결과 발표

(무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를 위한 촉구 활동 계속

올 한해에도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관한 문제와 본질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안정적인 사서교사 TO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비정규직사서와 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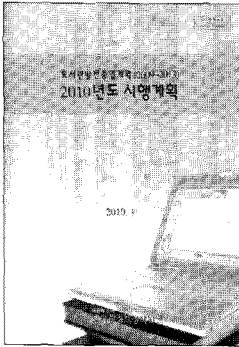
사서교사, 사서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 및 방안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예비사서교사총연합회는 사서교사의무배치 및 임용정원사전에 고제 촉구 집회를 열었다. 또한 이에 앞서 7월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기준 즉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등 1인 배치’를 준수,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반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안」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시하는 것임을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독서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도서관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하는 지자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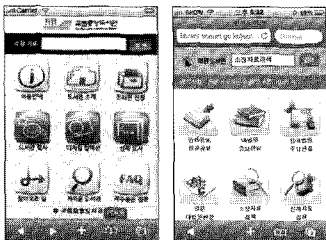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전라북도, 김해시, 순천시 등 기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해 온 지역 이외에 올해 부산광역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이 새롭게 도서관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월 19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요계획은, 2010년 전국에서 공공도서관 84개관, 작은도서관 103개관을 조성·확충하여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를 62,5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도서관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한다는 것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는 2010년에 4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591만여 권을 확충, 전체 인구 1인당 장서수를 1.4권으로 확충 계획이며 학교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반영,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4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전국의 대학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범용적인 학술DB를 국가가 일괄 구독하여 구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의 확보(20종) 및 대학도서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7개소)을 위해 2010년에 총 48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총 7,246억원(국고, 지방비, 민간부문 투자 모두 포함)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분야에 가장 많은 5,8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담고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크게 증가



최근 스마트폰 등 이동 및 휴대성이 강한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발달로 블로그와 트위터 등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사회전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최근 웹 2.0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법원도서관 등이 모바일

웹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도서관 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도서관 기관이나 사서 개인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계속적 논란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도서관협회는 조례안의 제정 추진과 의회 재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대표명하고 제222회 정례회(2010년 6월 21일-6월 30일)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일에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와 한국사서총연합회,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등이 동참하였고, 6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시의회가 해산함으로써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당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한국사서총연합회 창립대회 개최 및 활동 시작

한국사서총연합회가 5월 1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이번 창립대회에서 초대 정옥영 회장을 선출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창립대회 후 한국사서총연합회는 서울시도서관재단조례(안),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도서관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서, 부산시대표도서관정책부장 행정직인사에 대한 의견서등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투입산출지표) 3.66에 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정책연구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투입산출지표(ROI) 값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투입한 예산이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약 3천660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조사대상 표본도서관으로 선정된 22개 주요 공공도서관 이용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대표적 서비스인 정보자료 이용, 시설이용,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이용가치를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계획 발표에 따른 민간위탁 논란 과열

인천광역시가 11월 4일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계획을 공식발표했다. 인천광역시 시가 세운 도서관에 대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도서관 육성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협회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은 지역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이 그동안 해 왔거나 해야 할 역할과 중복된다. 실상을 연말에 인천문화재단의 민간위탁이 끝나는 수봉·영종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기구로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직만 신설될 뿐 민간위탁을 위한 구실에 불과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추진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에도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해 15개 시·도 68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내

공공·작은도서관간 연계 협력 기반을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간 및 기업등에서도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0년도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2010년도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통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58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며, 평가방법은 1차 평가(계량지표 400점, 운영평가 400점 등 총 800점 평가)와 2차 평가(이용자 만족도 평가 200점), 현장 평가를 통해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의 우수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교육·연구지원 서비스의 특성화 및 고도화(제1분야), 콘텐츠 확충과 대학 내 지식정보의 역할 강화(제2분야),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 협력 활성화(제3분야)로 이루어 졌으며, 대·중·소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